

간호대학생의 노인돌봄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양승애*

성신여자대학교 간호대학 간호학과 교수

Factors Influencing Nursing Students' Attitudes toward Elderly Care

Yang, Seung Ae*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College of Nursing, Sungshin Women's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들의 노인에 대한 지식 및 태도, 공감, 부양의식, 노인돌봄태도를 확인하고 변수 간의 상관관계 및 노인돌봄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에 소재하고 있는 일개 간호대학의 재학생 127명을 대상으로 Google 온라인 설문지를 통해 2025년 4월 7일부터 2025년 5월 16일까지 자료수집을 시행하였고, SPSS Statistics 25.0을 적용하여 기술 통계, t-검정, 일원 분산분석, 피어슨 상관관계수,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차이 분석 결과 노인돌봄태도는 나이($t=-2.766, p=.007$), 노인 체험활동 참여 여부($t=-2.620, p=.010$), 노인 관련 교육 경험 여부($t=-2.360, p=.020$)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고 노인돌봄태도는 노인에 대한 태도($r=.432, p<.01$), 공감($r=.297, p<.010$), 부양의식 ($r=.616, p<.01$) 간에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돌봄태도의 영향 변인은 노인에 대한 태도($\beta=.158, p<.05$), 공감($\beta=-.153, p<.05$), 부양의식($\beta=.462, p<.01$)로 확인되었으며 노인돌봄태도에 대한 설명력은 43.7%였다. 본 연구 결과는 간호대학생의 긍정적인 노인돌봄태도 향상을 위한 교육적 방안을 수립하는 데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 노인에 대한 지식, 태도, 공감, 부양의식, 노인돌봄태도

Abstract This study aimed to examine nursing students' knowledge, attitudes, empathy, filial responsibility, and attitudes toward caring for older adults, as well as to identify correlations among these variables and factors influencing attitudes toward elder care. Participants were 127 undergraduate nursing students enrolled at a nursing college located in Seoul, Republic of Korea. Data were collected via a Google online questionnaire from April 7 to May 16, 2025, and analyzed using SPSS Statistics 25.0. Descriptive statistics, t-tests, one-way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es were conducted. According to the analysis of differences by general characteristics, attitudes toward elder care significantly differed by age ($t = -2.766, p = .007$), participation in elderly experience activities ($t = -2.620, p = .010$), and completion of elderly-related education programs ($t = -2.360, p = .020$). Attitudes toward elder care showed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s with attitudes toward older adults ($r = .432, p < .01$), empathy ($r = .297, p < .01$), and filial responsibility ($r = .616, p < .010$). Factors influencing attitudes toward elder care were attitudes toward older adults ($\beta = .158, p < .05$), empathy ($\beta = -.153, p < .05$), and filial responsibility ($\beta = .462, p < .01$), which together explained 43.7% of the variance. These findings may serve as a basis for establishing educational strategies to enhance nursing students' positive attitudes toward elderly care.

Key Words : Knowledge, Attitudes, Empathy, Filial Responsibility, Attitudes toward Elderly Care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보건 의료기술의 진보와 생활 수준의 향상으로 기대 수명 수명이 증가하면서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급격한 인구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통계청(2025)에 따르면, 2024년 기준 65세 이상 인구는 전체의 19.5%를 차지하였고, 2025년에는 20.6%로 증가하며 초고령사회에 공식 진입한 상태이다[1]. 이러한 가속화된 고령화는 보건 의료와 노인복지 등 여러 분야에서 문제가 제기되어 왔고[2], 노인의 건강과 삶의 질을 유지하고 증진하기 위한 전문 간호 인력의 역할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 특히 간호대학생은 향후 고령 환자를 직접 돌보는 실무 주체로 성장할 인력이므로, 이들이 노인에게 갖는 인식과 태도는 향후 임상에서 질적인 노인간호의 제공과 직결된다[3].

노인에 대한 지식은 간호대학생이 노인을 이해하고 적절한 간호를 제공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다. 특히 노인의 생리적 변화, 질병 특성, 사회적 환경 등에 대한 이해 부족은 고정관념이나 편견 형성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4], 이는 임상 실무에서의 부적절한 돌봄으로 연결될 수 있다.

또한, 노인을 대하는 태도는 단순한 인지적 평가를 넘어, 간호대상자로서 노인을 존중하고 긍정적으로 수용하려는 정서적 성향을 반영하는 중요한 심리요인이다[5]. 간호대학생이 지닌 노인에 대한 태도는 장래 노인간호 실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교육과정 내에서 노인에게 대해 왜곡되지 않은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6].

공감은 환자의 감정을 이해하고 돌봄을 제공하는 데 핵심적인 간호 역량으로, 노인의 정서적 요구를 민감하게 포착하고 수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준다[7]. 특히 노인환자 돌봄에서 공감은 신체적 요구를 넘어 대상자의 전인적 이해를 바탕으로 간호를 제공하게 함으로써 더 다양한 측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8]. 실제로 공감 능력이 높은 간호사들은 긍정적인 노인 돌봄에 대한 태도를 형성하고 노인간호 수행 시 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8,9].

한편, 우리나라의 가족 중심 문화와 효 문화는 노인에게 대한 부양의식(filial responsibility) 형성에 영향을 미치며, 이는 간호대학생이 노인 돌봄을 어떻게 인식하고 접근하는지를 설명하는 사회문화적 배경 요인으로 기능한다[10]. 부양의식이 강할수록 돌봄 행위에 대한 책임감

을 높일 수 있으며, 간호 전문직의 윤리적 가치와도 접목될 수 있다. 개인의 노인부양의식은 노인부양에 관해 가지고 있는 태도나 인식을 의미하며 이는 노인의 열악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측면에서 경제적, 정서적 및 신체적 차원으로 분류될 수 있다[11]. 간호대학생은 가정 내 돌봄뿐만 아니라 임상 현장에서 노인환자를 돌보는 주체이므로 노인에게 효과적인 의료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대상자에 대한 책임 의식과 질적 수준이 보장된 치료와 간호에 도움을 주는 노인부양의식이 필요하다[12].

노인돌봄태도란 노인 돌봄에 대한 긍정적·부정적 반응 양식을 뜻하며 노인간호의 질적 수준을 결정하는 핵심변수이다[13]. 전반적으로 태도는 행동 예측과 수행 의지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노인환자에 대한 부정적 태도는 간호 실무와 간호 서비스의 질을 저해할 수 있다[14]. 따라서 간호대학생이 지니게 될 태도는 향후 노인간호의 수준과 성과를 좌우하므로, 편향 없는 긍정적인 돌봄 태도의 정립은 필수적이다[15,16].

이처럼 간호대학생의 노인돌봄태도는 지식, 태도, 공감, 부양의식 등 다양한 심리적·사회문화적 요인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변인 간의 통합적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노인에 대한 지식 및 태도, 공감, 부양의식이 노인돌봄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함으로써, 향후 간호교육과 임상 실습에서 효과적인 노인간호 역량 함양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마련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노인에 대한 지식 및 태도, 공감, 부양의식 및 노인돌봄태도를 파악하고 이들 변수 간의 관계 및 노인돌봄태도의 영향 변인을 확인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적인 특성을 파악한다.

둘째, 노인에 대한 지식 및 태도, 공감, 부양의식 및 노인돌봄태도를 확인한다.

셋째, 일반적 특성과 관련하여 노인돌봄태도의 차이를 파악한다.

넷째, 노인에 대한 지식 및 태도, 공감, 부양의식, 노인돌봄태도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다섯째, 노인돌봄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다.

2. 연구 방법

2.1 연구설계

간호대학생들의 노인에 대한 지식 및 태도, 공감, 부양 의식, 노인돌봄태도와와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2 연구 대상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는 서울시에 소재한 일개 4년 제 간호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을 편의 표집으로 조사하였다. 본 연구의 표본 수 산출 시 G*power 3.1.9.4 프로그램을 활용하였다. 선행연구를 근거로[17] 통계적 유의성과 실제적 유의성의 기준을 반영하여 검정력 0.95, 유의수준 0.05, 중간 정도의 효과 크기 0.15, 예측 변수 4개로 산출한 결과 연구에 필요한 적정 표본 수는 129명으로 확인되었으며, 20%의 탈락률을 고려해 총 155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137부가 회수되었으며 이중 자료 불충분으로 10부를 제외한 127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2.3 자료수집 및 윤리적 고려

본 연구의 자료는 2025년 4월 7일부터 2025년 5월 16일까지 온라인 설문지로 실시되었다. 자료수집은 Google 문서 도구로 작성된 설문지를 URL 링크를 통해 배포·수집하였다. 접속 시 첫 화면에서 연구 취지와 내용, 방법에 대해 안내받고 동의서를 제출한 뒤, 이어지는 화면에서 설문에 응답하였다. 수집된 데이터는 연구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며, 대상자의 개인정보와 익명성이 철저히 보호됨을 알렸다. 또한, 연구 참여자는 연구 도중 원하지 않을 때 언제든지 참여를 거부하거나 중단할 수 있고, 그로 인한 불이익이 없음을 설명하였다. 설문 소요 시간은 10분이었고 이에 대한 보상으로 소정의 모바일 쿠폰을 제공하였다.

2.4 연구 도구

자료수집 도구로는 구조화된 자기기입식 설문지를 사용하였으며, 설문 문항 구성은 일반적 특성 11문항, 노인에 대한 지식 25문항, 태도 20문항, 공감 28문항, 부양 의식 18문항, 노인돌봄태도 17문항을 포함하여 총 119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2.4.1 노인에 대한 지식

노인에 대한 지식은 Palmore(1988)가 개발한 Fact On Aging Quiz I(FAQ I)을[18] Lim, Kim, & Kim (2002)이 국내 상황에 적합하도록 번안한 도구를 사용하였다[19]. 전체 25문항으로 노인의 신체적 지식 11문항, 심리적 지식 6문항, 사회적 지식 8문항의 3개 하위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그렇다', '아니다', '잘 모르겠다'라는 응답 척도로 구분되며 짝수 문항의 경우 '그렇다'라고 응답한 경우, 홀수 문항의 경우 '아니다'라고 응답한 경우 정답으로 1점을 부여하고 오답과 '잘 모르겠다'는 0점으로 처리하였다. 전체 25개 문항의 합산 점수가 높을수록 노인에 대한 지식수준이 높음을 반영한다. 도구개발 당시 Palmore(1988)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 .71$ 이었으며[18],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62였다.

2.4.2 노인에 대한 태도

노인에 대한 태도 측정을 위해 Han(2004)이 개발한 도구로 조사하였다[20]. 총 20문항으로 형용사 쌍 20개로 구성된 의미분화 척도로 5점 Likert 척도를 이용하여 측정하는데 5점에 가까운 점수를 나타낼수록 노인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 수준을 의미한다. Han(2004)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 .78$ 이었고[20],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 .88$ 이었다.

2.4.3 공감

본 연구에서는 Davis(1983)가 개발한 대인 간 반응성 지수(Interpersonal Reactivity Index; IRI)를 Kang 등(2009)이 한국어로 번역하고,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한 한국어판 IRI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21]. 총 28문항으로 구성되며, 하위 영역은 관점 수용, 상상, 공감적 관심, 개인적 고통이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1점은 '나를 전혀 잘 표현하지 않음', 5점은 '나를 매우 잘 표현함'을 의미한다. 부정적인 문항(3-4, 7, 12-15, 18, 24)은 역코딩(reverse coding)하여 분석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공감 능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Kang 등(2009)에서는 Cronbach's $\alpha = .80$ 으로 나타났으며[21],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 .85$ 였다.

2.4.4 노인부양 의식

본 연구에서 Sim(1998)이 개발한 도구를 [22] Woo (2017)가 수정·보완한 도구로 측정하였다[23]. 이 도구는 총 18문항으로 3개 하위요인 즉, 경제적 부양 의식 6문

항, 신체적 부양의식 6문항, 정서적 부양의식 6문항으로 구성되었고 매우 반대(1점)로부터 매우 찬성(5점)의 5점 Likert 척도로 평가하였다. 높은 점수를 나타낼수록 노인 부양의식이 높음을 의미한다. Woo(2017)에서 Cronbach's $\alpha = .91$ 이었으며[23],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88이었다.

2.4.5 노인돌봄태도

본 연구에서는 Sanders, Montgomery, Pittman과 Balkwell(1984)의 노화 의미분별 척도와[24] Maxwell과 Sullivan(1980)에 의해 개발된 'Empathy and Attitudes Toward Caring for the Elderly' 측정 도구를[25] 기반으로 Kim(2009)이 개발한 도구를[13] Joung(2011)이 수정해서 구성한 노인돌봄태도 도구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총 17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5점 Likert 척도를 적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노인 돌봄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임을 나타낸다. Joung(2011) 연구에서 도구의 Cronbach's $\alpha = .92$ 이었으며[26],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93이었다.

2.5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Statistics 25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로 분석하였다.

둘째, 대상자의 노인에 대한 지식 및 태도, 공감, 부양의식, 노인돌봄태도는 평균과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셋째, 일반적 특성에 따른 노인돌봄태도 차이는 t-test 및 ANOVA로 분석하였으며, 사후검정은 Scheffé 검정을 시행하였다.

넷째, 대상자의 노인에 대한 지식 및 태도, 공감, 부양의식, 노인돌봄태도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다섯째, 대상자의 노인돌봄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Multiple linear regression analysis를 실시하였다.

2.6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서울 소재 4년제 일개 간호대학생을 편의 표집하였으므로 결과 해석과 일반화하는데 제한이 있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사용된 노인 지식 측정 도구의 α 값이 비교적 낮아 다른 변수와의 관계 해석에 제한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3. 연구 결과

3.1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 분석을 통해 확인하였으며 결과는 <Table 1>과 같다.

대상자는 간호학과 여학생이고, 나이는 평균 20.81세로 '20세 이하' 64명(50.4%), '21세 이상' 63명(49.6%)으로 조사되었다. 대상자의 학년은 '1학년' 35명(27.6%), '2학년' 39명(30.7%), '3학년' 33명(26.0%), '4학년'은 20명(15.7%) 순으로 나타났다. 학업성취도의 경우 '상위권'이라고 응답한 경우 29명(22.8%), '중위권' 71명(55.9%), '하위권' 27명(21.3%)으로 응답하였고 종교가 '있음'이라고 응답한 경우 37명(29.1%), '없음'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90명(49.7%)으로 나타났다. 주관적으로 인지한 건강 상태의 경우 ' 좋음' 60명(47.2%), '보통' 51명(40.2%), '나쁨' 16명(12.6%) 순으로 나타났고 조부모 생존에 관해 '조부만 생존'의 경우 5명(3.9%), '조모만 생존' 49명(38.6%), '모두 생존'의 경우 57명(44.9%), '모두 사망'한 경우는 16명(12.6%)이 응답하였다. 연구 대상자 중 '조부모와 동거 경험'이 있는 학생은 54명(42.5%)이었고 노인 대상 자원봉사 경험이 있는 학생은 84명(66.1%), 노인 체험활동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은 58명(45.7%), 노인 관련 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은 55명(43.3%)이었고 노인간호 실습 경험이 있는 학생은 10명(7.9%)으로 대부분 노인간호 실습 경험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127)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Age(yrs)	≤20	64(50.4)
	≥21	63(49.6)
	M±SD	20.81±1.96
Grade	Freshman	35(27.6)
	Sophomore	39(30.7)
	Junior	33(26.0)
	Senior	20(15.7)
Academic performance	High	29(22.8)
	Medium	71(55.9)
	Low	27(21.3)
Religion	Yes	37(29.1)
	No	90(49.7)
Perceived health status	Good	60(47.2)
	Neutral	51(40.2)
	Bad	16(12.6)

Grandparent's survival status	Grandfather	5(3.9)
	Grandmother	49(38.6)
	All survive	57(44.9)
	All deceased	16(12.6)
Living with grandparents	Yes	54(42.5)
	No	73(57.5)
Volunteer experience with the elderly	Yes	84(66.1)
	No	43(33.9)
Elderly experience programs	Yes	58(45.7)
	No	69(54.3)
Elderly related education experience	Yes	55(43.3)
	No	72(56.7)
Elderly related practice experience	Yes	10(7.9)
	No	117(92.1)

3.2 노인에 대한 지식 및 태도, 공감, 부양의식, 노인돌봄태도

노인에 대한 지식 및 태도, 공감, 부양의식, 노인돌봄태도는 <Table 2>와 같다.

<Table 2> Level of Knowledge, Attitudes, Empathy, Filial Responsibility & Attitudes toward Elderly Care

(N=127)

Variables	M±SD	Min	Max	Range
Knowledge	10.65±2.80	0.00	18.00	0-25
Attitudes	3.18±. 47	1.75	4.20	1-5
Empathy	3.44±. 47	2.33	4.50	1-5
Filial Responsibility	3.94±. 48	2.28	5.00	1-5
Attitudes toward Elderly care	3.74±. 50	2.53	5.00	1-5

노인 지식 점수는 총 25점 만점 기준 평균 10.65±2.80점, 노인에 대한 태도는 평균 3.18±. 47점, 공감은 평균 3.44±. 47점, 부양의식은 평균 3.94±. 48점, 노인돌봄태도 수준은 5점 만점에서 평균 3.74±. 50점으로 분석되었다.

3.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노인돌봄태도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노인돌봄태도차이 분석 결과는 <Table 3>과 같다. 노인돌봄태도는 나이($t=-2.766$, $p=.007$), 노인 체험활동 참여 여부($t=-2.620$, $p=.010$), 노인 관련 교육 경험 여부($t=-2.360$, $p=.020$)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Table 3> Difference in Attitude toward Elderly Care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127)

Characteristics	Categories	Attitudes toward Elderly Care		
		M±SD	t/F(p)	scheffe's
Age(yrs)	≤20	3.62±. 47	-2.766** (.007)	-
	≥21	3.86±. 50		
Grade	Freshman	3.69±. 53	1.163 (.327)	-
	Sophomore	3.67±. 46		
	Junior	3.77±. 52		
	Senior	3.91±. 46		
Academic performance	High	3.74±. 51	1.282 (.281)	-
	Medium	3.69±. 49		
	Low	3.87±. 52		
Religion	Yes	3.78±. 46	.597 (.552)	-
	No	3.73±. 52		
Perceived health status	Good ^a	3.83±. 55	1.931 (.149)	-
	Neutral ^b	3.67±. 48		
	Bad ^c	3.63±. 32		
Grandparent's survival status	Grandfather	3.74±. 36	.275 (.843)	-
	Grandmother	3.70±. 44		
	All survive	3.79±. 55		
	All deceased	3.71±. 53		
Living with grandparents	Yes	3.76±. 52	.283 (.778)	-
	No	3.73±. 48		
Volunteer experience with the elderly	Yes	3.80±. 47	1.847 (.067)	-
	No	3.63±. 53		
Elderly experience programs	Yes	3.87±. 50	2.620* (.010)	-
	No	3.64±. 48		
Elderly related education experience	Yes	3.86±. 51	2.360* (.020)	-
	No	3.65±. 48		
Elderly related practice experience	Yes	4.04±. 57	1.955 (.053)	-
	No	3.72±. 49		

* $p<0.05$, ** $p<0.01$

3.5 노인에 대한 지식 및 태도, 공감, 부양의식, 노인돌봄태도 간의 상관관계

노인에 대한 지식 및 태도, 공감, 부양의식, 노인돌봄태도와의 상관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피어슨 상관계수를 적용하여 측정하였으며, 결과는 <Table 4>와 같다.

노인돌봄태도는 노인에 대한 태도($r=.432$, $p<.010$), 공감($r=.297$, $p<.010$), 부양의식과 ($r=.616$, $p<.010$)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제시하였다.

<Table 4> Correlations among Knowledge, Attitudes, Empathy, Filial Responsibility, & Attitude toward Elderly Care

(N=127)

Variable	Knowledge	Attitudes	Empathy	Filial Responsibility	Attitude toward Elderly Care
Knowledge	1				
Attitudes	.229 [†] (.010)	1			
Empathy	.063 (.479)	.158 (.076)	1		
Filial Responsibility	.036 (.685)	.529** ($<.001$)	.230** (.009)	1	
Attitude toward Elderly Care	.113 (.208)	.432** ($<.001$)	.297** ($<.001$)	.616** ($<.001$)	1

* $\alpha 0.05$, ** $\alpha 0.01$

3.5 노인돌봄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간호대학생의 노인돌봄태도에 대한 영향 요인을 규명하기 위해 일반적 특성 중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인 나이와 노인 체험활동 참여 여부, 노인 관련 교육 경험 여부 그리고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제시한 노인에 대한 태도, 공감 그리고 부양의식을 설정하여 다중 선형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F = 17.276, p < .001$) Durbin-Watson 값이 1.935로 나타나 잔차 간 독립성이 확보되었고, 분산팽창지수(Variance Inflation Factor, VIF)는 1.063~1.476으로 기준값 10 이하로 나타나 독립변수 간 다중공선성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간호대학생의 노인돌봄태도에 미치는 영향 요인은 노인에 대한 태도($\beta = .158, p < .05$), 공감($\beta = .153, p < .05$), 노인부양의식($\beta = .462, p < .01$)로 확인되었으며 노인돌봄태도에 대한 설명력은 43.7%였다(Table 5).

<Table 5> Factors influencing Attitudes toward Elderly Care

(N=127)

Variables	B	SE	β	t	ρ
Constant	.895	.400		2.236	.027
Age	.103	.072	.104	1.432	.155
Elderly experience programs	-.107	.077	-.107	-1.391	.167
Elderly related education experience	-.077	.074	-.077	-1.045	.298
Attitudes	.168	.084	.158	1.992	.049*
Empathy	.163	.074	.153	2.217	.029*
Filial Responsibility	.479	.084	.462	5.688	$<.001$ **
$R^2 = .463$ Adjusted $R^2 = .437$ $F = 17.276$ $P < .001$ VIF=1.063 ~ 1.476 Durbin-Watson=1.935					

* $\alpha 0.05$, ** $\alpha 0.01$

4. 논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노인에 대한 지식 및 태도, 공감, 부양의식, 노인돌봄태도 정도를 파악하고 이들 변수 간의 관계와 노인돌봄태도에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노인돌봄태도 점수는 5점 만점에 평균 3.74(± 0.50)점으로 나타났다. 같은 측정 도구를 적용하여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Kwon(2016)에서는 3.49점[27], Yeom과 Seo(2024)는 4.04점으로 긍정적인 수준을 제시하였다[28]. 또한, 같은 도구를 이용하여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Joung(2011)의 연구에서 4.03점[26], Maeng(2022)에서는 3.56점을 제시하여[29] 역시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대상자의 특성과 노인을 가족의 일원으로서 전인적으로 돌보는 ‘돌봄(caring)’의 대상으로 보는지 혹은 일상생활을 불편 없이 유지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관리(management)’의 대상으로 보는지와 같은 인식의 차이에 따라 노인돌봄태도가 달라질 수 있다[30].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를 통해[26,29] 상급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의 경우 노인요양시설과 노인 요양 병원 간호사보다 다소 낮은 점수를 제시하였는데 이는 상급병원의 경우 질병에 대한 치료가 우선시되는 급성기 병원 환경 때문으로 분석하였다. 즉, 노인의 건강상 취약성이 가장 높은 시기에 대면하게 되므로 노인대상자에 대한 긍정적인 경험이 적고 대상자의 간호 요구 이전에 치료에 우선순위를 두어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게 된다[31].

일반적 특성에 따른 노인돌봄태도는 나이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즉, 나이가 ‘21세 이상’인 경우 ‘20세 이하’의 대상자보다 높은 점수를 제시하였으며 노인 체험활동 참여 여부 및 노인 관련 교육 경험 여부에 따라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를 제시하였다.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Joung(2011)의 연구에서 노인 유사체험을 시행한 경우 노인돌봄태도에 긍정적인 변화가 있다고 보고하였는데[26] 이는 본연구결과에서 노인 체험활동 참여 여부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제시한 결과를 뒷받침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노인 관련 교육 경험 여부에 따라 노인돌봄태도에 유의한 차이를 보고한 Yeom과 Seo(2024)는 본 연구의 결과를 지지하였다[28]. 본연구결과를 고려해볼 때 나이, 노인 체험활동 참여 여부 및 노인 관련 교육 경험을 반영한 교육내용을 개발하여 적용함으로써 간호대학생들의 노인돌봄태도를 긍정적 수준으로 강화하기 위한 지속적인 지원과 노력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노인 지식수준은 25점 만점에서 평균 10.65(±2.80)점으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같은 도구를 사용한 Kim(2016)의 14.78점, Kim, Oh, & Wang(2016)의 14.57점보다 다소 낮은 결과를 나타냈다[2,3]. 반면 Jung(2017)은 11.34점[6], Kwon 등(2016)에서는 11.75점을 제시하여[27] 유사한 수준을 보였다. 본 연구 참여자의 57.3%가 1·2학년 학생으로 이들은 노인간호학 이론 및 실습을 아직 이수하지 않은 단계이다. 따라서 교육과정 이수 및 임상경험이 부족한 학업적 특성이 지식수준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노인에 대해 올바른 지식을 갖추는 것은 대상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32] 질적인 노인간호를 제공하기 위해 교육과정 편성 시 강의시수의 고려와 함께 노화 과정 및 노인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기 위해 신체 생리, 심리, 가족사회 등의 모든 변화를 종합하는 측면에서 제공할 수 있는 교육내용 영역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본다[6,27].

노인에 대한 태도는 5점 만점에 3.18(±.47)점으로 긍정적인 결과를 제시하였는데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와 유사한 측정 도구를 활용한 Kim(2016)에서 2.92점, Jung(2017)에서 2.93점을 제시하여 중립적인 입장에서 다소 긍정적인 측면으로 기울어져 있음을 보여주었다 [2,6]. Kim, Oh & Wang(2016)과 Ha와 Park(2019)의 경우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각각 2.84점, 2.58점을 보고하였는데[3,33] 이는 점수가 낮을수록 긍정적인 태도를 의미하고 있어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반면에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Kim과 Lee(2020)는 3.11점을 나타내 간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와 비교해서 다소 부정적인 결과를 제시하였다[31]. 이러한 결과는 임상 현장에서 아프고 비활동적이며 의존적인 상황의 노인환자들을 접하는 경험을 반복함에 따라 간호대학생들과 비교해 더 부정적인 태도를 지니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34]. 노인환자 간호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실제로 겪기 전 단계에 있는 간호대학생은, 간호사와 비교해 노인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이 적게 형성되었을 가능성이 있다[33]. 노인에 대한 긍정적 태도는 노인을 대하는 실제 행위에 직·간접적으로 작용하여 간호의 질을 높인다는 결과에 근거하여[3] 간호대학생들에게 노인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긍정적 경험을 강화하고 유지할 수 있는 현장실습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33].

공감은 5점 만점에 평균 3.44(±.47)점으로 나타났다. 같은 도구를 적용하여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Yi(2024) 에서 제시한 3.30점은 본 연구 결과와 유사하였으나[35] Han과 Seo(2022)의 2.57 점보다는 더 높게 나타났다[36]. 공감은 환자와의 치료적 관계를 유지하는 핵심 요소이며, 이를 통해 간호의 효과성이 높아지므로 간호사의 공감 수준이 높을수록 대상자에게 더욱 질 높은 간호를 제공할 수 있다[37]. 그러므로 노인대상자에 대한 공감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공감력을 향상할 수 있는 비교과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임상 실습 현장에서의 적용 및 훈련이 필요하다.

노인에 대한 부양의식은 5점 만점에 평균 3.94(±.48)점으로 확인되었고 같은 측정 도구를 사용하여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선행연구[36,38] 에서 각각 4.08점, 4.05점을 제시하여 긍정적인 측면의 유사한 결과를 나타냈다. 초고령사회에서 노인부양 역할을 담당하게 될 간호대학생들의 긍정적인 노인부양의식 수준을 유지하고 향상하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본 연구 결과에서 노인돌봄태도는 노인에 대한 태도($r = .432, p < .010$), 간호대학생의 공감($r = .297, p < .010$), 부양의식과($r = .616, p < .010$)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노인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일수록 노인 돌봄 태도가 긍정적인 결과를 제시한 Kim(2016)의 결과와 일치하였다. 노인돌봄태도와 공감과의 상관관계에서 공감이 높을수록 노인돌봄태도가 좋은 것을 보고한 Lee, Kim, & Boo(2025), Ko와 Han(2021)은 본연구 결과를 지지하였다[39,40]. 본연구결과에서 부양의식이 높을수록 노인돌봄태도가 긍정적인 수준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Lee 등(2022)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였다[41]. 이에 노인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함양하고 공감 능력과 부양의식을 체계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교육 활동을 통해 노인의 신체적·정신적·정서적 복합 요구를 이해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노인 전문 간호 인력의 양성이 강조된다[42].

본 연구를 통해 간호대학생의 노인돌봄태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노인부양의식($\beta = .462, p < .01$), 노인에 대한 태도($\beta = .158, p < .05$), 공감($\beta = -.153, p < .05$) 순으로 나타났으며 설명력은 43.7%로 확인되었다. 노인 부양의식이 노인돌봄태도에 가장 영향력이 큰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다만 본연구결과와 같은 결과를 보고한 연구가 없어 비교할 수는 없지만, Lee 등(2022)에서 노인 부양의식과 노인돌봄태도 간에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을 보고한 결과와 의미상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41]. 노인부양이란 신체적, 정서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취약한 상황에 처한 노인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의지

또는 책임 의식을 의미하며[43] 이는 개인의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며 실질적인 지원과의 연계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노인부양의식을 높이기 위해 사회적 접근 및 복지정책 등의 제도적 뒷받침이 요구된다[41]. 노인돌봄태도는 노인에 대한 태도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는 Kim(2016)의 결과에 따라 지지가 되었다[2]. 간호대학생이 긍정적인 노인돌봄태도를 정립하기 위해서는 교육을 통해 노인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함양하는 방안이 필요하다[2]. Lee, Kim, & Boo(2025)에서 노인돌봄태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공감을 보고하였는데 이는 본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공감은 단순히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는 것을 넘어, 대상자의 상황을 정확히 인식하고 이를 토대로 적절한 행동으로 연결하는 과정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노인 돌봄에서 핵심적인 요소로 인식되며 간호대학생에게 필수 역량으로 강조된다[39].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전인 간호를 수행할 간호사로 성장할 간호대학생들이 노인과의 상호작용이 제한된 환경에서도 긍정적인 노인 돌봄 태도를 함양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내에서 차별화된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교수법과 전략을 계획하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들의 노인돌봄태도에 영향을 주는 변인에 관한 연구로 노인에 대한 지식 및 태도, 공감, 부양의식 그리고 노인돌봄태도 간의 관계를 확인하여 간호대학생들의 노인돌봄태도 수준을 긍정적으로 향상하는 방안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들의 노인에 대한 지식 및 태도, 공감, 부양의식 그리고 노인돌봄태도 정도를 파악하여 노인돌봄태도를 긍정적으로 향상할 방안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에 대한 지식은 평균 10.65 ± 2.80 점, 태도는 평균 $3.18 \pm .47$ 점, 공감은 평균 $3.44 \pm .47$ 점, 부양의식은 평균 $3.94 \pm .48$ 점, 노인돌봄태도의 평균은 $3.74 \pm .50$ 점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노인돌봄태도는 나이($t = -2.766, p = .007$), 노인 체험활동 참여 여부($t = -2.620, p = .010$), 노인 관련 교육 경험 여부($t = -2.360, p = .020$)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

타났다.

셋째, 노인돌봄태도는 노인에 대한 태도($r = .432, p < .010$), 공감($r = .297, p < .010$), 부양의식과 ($r = .616, p < .010$)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제시되었다.

넷째, 간호대학생의 노인돌봄태도에 미치는 영향 요인은 부양의식($\beta = .462, p < .01$), 노인에 대한 태도($\beta = .158, p < .05$), 공감($\beta = .153, p < .05$)으로 확인되었으며 노인돌봄태도에 대한 설명력은 43.7%였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볼 때, 간호대학생의 노인돌봄태도 향상을 위해서는 부양의식 교육, 노인에 대한 편견 교정 및 긍정적 태도 형성, 공감 능력 훈련을 포함하는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증재 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서울 지역 내 4년제 간호대학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정되었다. 향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지역의 간호대학을 포함하고 대상자 규모를 확충하여 노인돌봄태도의 변화를 비교·분석하는 종단적 연구가 필요함을 제언한다.

둘째,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노인돌봄태도 향상을 목표로 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효과를 검증하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REFERENCES

- [1] Korean Statistical Information Service. Population aged 65 and over (% of total population) [Internet]. Retrieved August 7, 2025, Available from: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YL20631
- [2] H. J. Kim, "Factors Affecting the Nursing Students' Attitude toward Care of the Elderly",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 16, No. 12, pp. 213-222, 2016.
- [3] S. O. Kim, H. S. Oh, & M. S. Wang, "A Study on the Nursing Students' Knowledge, Attitudes and Behavior towards the Elderly",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 22, No. 2, pp. 163-170, 2016.
- [4] E. Palmore, "The Facts on Aging : A Short Quiz", *The Gerontologist*, Vol. 17, No. 42, pp. 315-320, 1977.
- [5] N. Kogan, "Attitudes toward old people: The development of a scale and an examination of correlates",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Vol. 62, No. 1,

- pp. 44-54, 1961.
- [6] K. I. Jung, "Influencing Factors on Nursing Student's Attitude to the Elderly", *Journal of Wholistic Nursing Science*, Vol. 10, pp. 31-41, 2017.
- [7] M. H. Davis, "Measuring individual differences in empathy: Evidence for a multidimensional approach",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44, No. 1, pp. 113-126, 1983.
- [8] N. S. Seo, J. S. Moon, S. H. Hong, & Y. H. Park, "The influence of attitude, experience and empathy on the nursing care of the elderly who have no caregiver",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Service Management*, Vol. 10, No. 2, pp. 179-191, 2016.
- [9] M. H. Lee, "Nursing students' attitudes to dementia and empathy as predictors of pain assessment in patients with dementia: a mediation model", *Journal of Korean Gerontological Nursing*, Vol. 21, No. 1, pp. 41-49, 2019.
- [10] K. T. Sung, "Measures and dimensions of filial piety in Korea", *The Gerontologist*, Vol. 35, No. 2, pp. 240-247, 1995.
- [11] D. A. G. Hong & K. Y. Ha, "Effect of Grandchildren's Solidarity with their Grandparents on Caring Attitude for the Elderly", *Korean Journal of Human Ecology*, Vol. 11, No. 2, pp. 107-121, 2002.
- [12] K. M. Park & D. Y. Lim, "Undergraduate Nursing Student's Knowledge, Attitudes Regarding Aging, and Awareness about Supporting the Aged", *Keimyung Journal of Nursing Science*, Vol. 20, No. 2, pp. 2-12, 2016.
- [13] Y. O. Kim, "The Effect of Senior Simulation on Nurse's Attitude Toward the Elderly & Care of the Elderly", Master's thesis,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Jinju-si, 2009.
- [14] H. S. Oh & H. S. Jeong, "A Study on Nursing Students' Elderly Patient Simulation Experience",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4, No. 7, pp. 3358-3367, 2013.
- [15] M. H. Kim, "Nursing students' Knowledge, Attitude and Behavior toward Elderly",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Service Management*, Vol. 5, No. 4, pp. 113-126, 2011.
- [16] S. Zhang, Y. H. Liu, H. F. Zhang, L. N. Meng, & P. X. Liu, "Determinants of undergraduate nursing students' care willingness towards the elderly in China: Attitudes, gratitude and knowledge", *Nursing Education Today*, Vol. 43, pp. 28-33, 2016.
- [17] H. C. Kang, K. P. Yeon, & S. T. Han, "A Review on the Use of Effect Size in Nursing Research",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Vol. 45, No. 5, pp. 641-64, 2015.
- [18] E. B. Palmore, *The Facts on Aging Quiz: A Handbook of Uses and Results*, New York: Springer Publishing Company, p201, 1988.
- [19] Y. S. Lim, J. S. Kim, & K. S. Kim, "Nurses' knowledge and attitudes toward the elderly", *Journal of the Korea Gerontological Society*, Vol. 22, No. 1, pp. 31-46, 2002.
- [20] J. R. Han, "Development of the Scale for Attitude toward Age Groups", *Journal of the Korea Gerontological Society*, Vol. 24, No. 3, pp. 159-172, 2004.
- [21] S. Il. Kang, S. W. Kee, S. E. Kim, B. S. Jeong, J. H. Hwang, J. E. Song & J. W. Kim, "Reliability and Validity of the Korean-Version of Interpersonal Reactivity Index", *Journal of the Korean Neuropsychiatric Association*, Vol. 48, No. 5, pp. 352-358, 2009.
- [22] E. J. Shim, A Positive study on the difference of consciousness of supporting elders among generations, Master's thesis, Hanyang University, Seoul, 1998.
- [23] H. H. Woo, A Study on the Knowledge, Attitude of Dementia, and Supporting Awareness of Care Giving for the Elderly among Students of High School Specialized in Health, Master's thesis, Hanyang University, Seoul, 2017.
- [24] G. F. Sanders, J. E. Montgomery, J. F. Pittman, Jr, & C. Balkwell, "Youth's Attitudes Toward the Elderly", *Journal of Applied Gerontology*, Vol. 3, No. 1, pp. 59-70, 1984.
<https://doi.org/10.1177/073346488400300107>
- [25] A. J. Maxwell & N. Sullivan, "Attitudes toward the geriatric patient among family practice residents", *Journal of American Geriatric society*, Vol. 28, No. 8, pp. 341-345, 1980.
- [26] H. Y. Joung, The Effect of Senior Simulation Program in Elderly Care Attitudes of the employees working for Elderly Care Facilities, the understanding of the aged, and job performance", Master's thesis, Kangwon National University, Chuncheon, 2011.
- [27] S. H. Kwon, H. J. Kang, S. C. Youn, & Y. S. Kim, "The Convergent Influence of Knowledge, Attitudes toward Caring for the Elderly and Geriatric Nursing Practice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4, No. 4, pp. 303-314, 2016.
- [28] E. Y. Yeom & K. W. Seo, "Mediating effect of caring efficac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aging anxiety and attitude toward caring for the older adults in nursing students", *Korean Association for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 22, No. 2, pp. 51-59, 2024.
- [29] Y. J. Maeng, Predictors of Attitudes toward Caring for the older adult of Nurses in Tertiary Hospitals, Master's thesis, Hanyang University, Seoul, 2022.
- [30] H. J. Choi, The Research on Nurses' Knowledge, Attitude and Practice for old age patient, Master's thesis, Kyunghee University, Seoul, 2002.
- [31] E. J. Kim & K. H. Lee, "Knowledge Attitude, and Performance of Nurses in a Tertiary Hospital toward Older Adults", *Journal of Korean Gerontological Nursing*, Vol. 22, No. 2, pp. 303-314, 2020.

- [32] H. U. Park & B. H. Cho, "Nurses' knowledge and attitude toward the elderly in care facilities for old peopl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Home Health Care Nursing*, Vol. 17, No. 1, pp. 36-44, 2010.
- [33] J Y. Ha & J. Y. Park, "Factors Affecting the Social Distance toward Older Adults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Community Health Nursing*, Vol. 30, No. 4, pp. 539-549, 2019.
- [34] M. Y. Koo & S. H. Kwon, "The Relationship between Clinical Nurse's Attitude toward and Nursing Practice for the Elderly", *Journal of Wholistic Nursing Science*, Vol. 8, pp. 1-14, 2015.
- [35] Y. M. Yi, "The Influence of Nursing Student's Knowledge, Empathy, and Attitudes on Their Behavior toward the Aged",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Integrative Medicine*, Vol. 12, No. 4, pp. 131-145, 2024.
- [36] Y. A. Han & M. S. Seo, "Convergence Factors Influencing Nursing Students' Awareness of Caregiving for the Elderly", *Journal of Internet of Things and Convergence*, Vol. 8, No. 6, pp. 75-84, 2022.
- [37] B. Penprase, B. Oakley, R. Ternes, & D. Discroll, "Empathy as a determining factor for nursing career selection", *Journal of Nursing Education*, Vol. 52, No. 4, pp. 192-197, 2013.
- [38] M. J. Yun, "A Study on the Knowledge, Attitude of Dementia, and Awareness of care giving for Elderly among of Nursing student",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7, No. 11, pp. 419-426, 2019.
- [39] B. Y. Lee, S. H. Kim, & S. J. Boo, "Factors Influencing Attitudes Toward Geriatric Care among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home care nursing*, Vol. 32, No. 1, pp. 5-13, 2025.
- [40] W. R. Ko & J. H. Han, "The Effect of the Knowledge, Care Attitude, and Empathy of General Hospital Nurses on their Nursing Performance toward Elderly Pati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22, No. 11 pp. 628-637, 2021.
- [41] E. M. Lee, M. K. Kim, S. S. Jung, Y. S. Son, M. Y. Go, S. J. Kim, & H. R. Nam, "The Effect of Knowledge and Attitude on Dementia, Elderly Caring Attitude on the Awareness of Supporting the Elderly among Nursing Student", *Nursing & Health Issues*, Vol. 27, No. 1 pp. 10-18, 2022.
- [42] E. H. Kim, S. J. Hong, & N. H. Cha, "Effects of Nursing Students' Perception of the Elderly and Their Care Attitudes, Emotional Intelligence on Problem-solving Ability",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Vol. 11, No. 2 pp. 407-416, 2025.
- [43] I. S. Ko, E. K. Han, & D. R. Kim, "Relationship among dementia knowledge, attitude, and care burden of nurses in center for dementia",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 8, No. 9, pp. 67-75, 2017.

양 승 애(Seung-Ae Yang)

[정회원]



- 1985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간호학과(이학사)
- 1997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교육학석사)
- 2002년 8월 : 이화여자대학교 간호학과(간호학박사)
- 1985년 2월 ~ 2004년 3월 : 삼성제일병원
- 2004년 4월 ~ 2007년 1월 : 국립의료원 간호대학 조교수
- 2007년 2월 ~ 현재 : 성신여자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관심분야>

간호교육, 시뮬레이션 교육